

말씀 속으로

- 성벽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될 무렵, 산발랏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그 속뜻은 무엇이었으며, 느헤미야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3절)
 -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다
 -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 산발랏과 게셈은 느헤미야에게 네 번씩이나 만날 것을 요구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4절)
 -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보낸 다섯 번째 편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5~7절)
 -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 그 편지를 받은 느헤미야는 무엇이라 답합니까? (8절)
 -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यो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 산발랏이 그의 종자를 통해 다섯 번째 편지를 보낼 때, 그것을 인봉하지 않은 채로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협박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염려와 근심의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야 할지 생각해봅시다.

기도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되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